

헤르만 헤세의 『어린 영혼 Kinderseele』에 나타난 유년시절의 체험

이 화 영*

1. 서 론

사람들은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글쓰기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들은 과거에 경험한, 특별히 유년시절에 체험한 상처나 고통 등을 나중에 공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만족시키려고 한다. 작가의 작품은 이러한 욕구충족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서전적인 글쓰기 속에서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다.

젊은 세대는 부모세대의 생활방식과 갈등을 겪게 되며, 부모에 대한 끌림과 거리감의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내적인 갈등의 과정은 개인적으로 다양하며, 개성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많은 작가들은, 이러한 경험을 형상화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아성장에 있어서 대립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어머니와 아들은 자연적으로 밀접한 관계, 일종의 공생관계를 형성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게 된다. 대화가 거의 없다면, 갈등이 발생한다. 헤세의 작품에는 자서전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특별히 유년시절의 체험은 그의 창작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영혼』¹⁾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부교수

1) Hesse, Hermann: Gesammelte Werke, Frankfurt/M. 1987, Band 5. (앞으로는 GW라고 표시함)

2. 본 론

2. 1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헤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쥐리히의 역에서 그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것은 1916년 3월 8일이었다. 헤세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신경쇠약에 걸리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유년시절에 그가 아버지에게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증오, 분노와 무기력함이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교육방식 때문에 헤세는 이러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발표된 글에서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고통스러운 아픔이라고 이야기할 뿐, 따뜻하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헤세는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괴롭게 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였고, 그의 마지막 인사는 간단한 내용이 담긴 우편엽서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엄청난 죄책감이 그를 엄습하였다.²⁾ 헤세보다 2년 후에 아버지를 잃은 친구 루드비히 핑크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나중에 나는 아버지 세계와 단절하기 시작해야만 하였다. 나는 그것을 아직 끝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Bei mir kam es nachher so, dass ich bald darauf beginnen musste, mit dem Vaeterlichen abubrechen. Ich bin damit noch nicht fertig, es ist bitter und langwierig.³⁾

헤세는 여기에서 아버지와 결별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관하여 결별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은 자신의 아버지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 부모, 보호자, 교육자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의미한다. 1919년에 발표된 『귀향 Heimkehr』에서 주인공인 파울은 전쟁에서 집으

2) Vgl. Hesse, Hermann: Zum Gedächtnis. In: H.Hesse, Gesammelte Werke. Frankfurt/ M. 1987, Band 10, S. 121-133.

3) Michels, Volker(hg.): Materialien zu Hermann Hesse: »Demian«. Entstehungsgeschichte in Selbstzeugnissen, Frankfurt/M. 1993, S.128.

로 돌아온다. 러시아에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나는 내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불행, 운명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파악하였다. 그것은 그에게서 왔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행복하지 못하였다. 그는 나를 너무나 억압하였다. 나는 그를 너무 믿었고, 모방하였다. 나의 유년시절 내내 나는 그를 하나의 신으로 그리고 모범으로 간주하였다. 나는 그와 새롭고, 인간적인 자유로운 그리고 이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는 그와 분리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전쟁이고, 나의 혁명이다. Ich begriff, woher alles Krumme und Mißglücke in mir und meinem Schicksal kam. Ich habe mich von ihm zuviel unterdrücken lassen, ihm zuviel geglaubt, ihn zuviel nachgeahmt. Durch meine ganze Kindheit habe ich ihn für einen Gott und ein Vorbild angesehen. Ich muß zu ihm in ein neues Verhältnis kommen, in ein menschliches, freies, vernünftiges, oder los von ihm. Das ist mein Krieg, meine Revolution.⁴⁾

이 작품의 결말은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파울이 아버지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는 알 수가 없다. 칼브와 가이엔호펜에서 주고 받은 편지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십년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방문할 때마다 보다 따뜻함을 느꼈다. Ich hatte mit meinem Vater seit zehn Jahren und mehr Jahren so gelebt, daß ich mein Tun und Lassen außer seiner Autorität und Kontrolle hielt, desto zarter verkehrten wir bei Besuchen etc.miteinander.”⁵⁾

아버지와 아들사이에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귀향 Heimkehr』에서 아버지가 요하네스 헤세와 공통적인 면을 갖고 있는 바와 같이, 1919년 완성된 『어린영혼』도 자서전적인 면을 갖고 있다.

4) Michels, Volker(hg.): Politik des Gewissens. Frankfurt/M.1977, S.312.

5) Hesse, Hermann: Traumgeschenk. Betrachtungen, Tagebücher, Erzählungen und Gedichte über das Träumen. hrsg.v.V.Michels. Frankfurt/M. 1996, S.80.

2. 2 『어린영혼』의 해석

2. 2. 1 초자아로서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에 대한 화자인 헤세의 관계는 다양하고, 이중적이다. 아버지에 대하여 그는 경외감을 갖고 있다. 아버지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최고의 존재라고 화자는 생각한다. 아들은 한편으로 이것을 위협으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느낀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정신이며, 재판관이며 권위의 상징이다. 헤세의 『어린영혼』에서 주인공은 아래 층의 어머니를 포함한 자기와의 세계와 위 층의 아버지 세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우리 집의 아래층 거실에는 어머니와 아이가 있다. 거기서는 적대감 없는 바람이 분다. 그러나 여기 위 층에는 힘과 정신이 살고 있다. 여기에는 재판관 사원과 <아버지의 제국>이 있다. Unten in unserer Wohnung waren Mutter und Kind zu Hause, dort wehte harmlose Luft; hier oben wohnten Macht und Geist, hier waren Gericht und Tempel und das <Reich des Vaters>.(GW.S.175)

헤세는 부모나 주위의 지나친 경건주의적, 청교도적 신앙에 대한 반항심도 있었다. 신과 같이 비유되는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헤세는 자전적 소설인 『어린영혼』에 잘 나타나고 있다. 엄격한 아버지는 사방의 벽 뒤에서 숨어 위협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헤세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한다.

내가 모든 감정과 그것의 고통스러운 싸움을 기본감정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그것을 두려움 이외의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두려움은 내가 유년시절의 행복이 방해받던 시간에 느꼈던 불안함이었다. Wenn ich alle die Gefühle und ihren qualvollen Widerstreit auf ein Grundgefühl zurückführen und mit einem einzigen Namen bezeichnen sollte, so würde ich kein anderes Wort als: Angst. Angst war es, was ich in all jenen Stunden des gestörten Kinderglücks empfand.(GW.S.173)

헤세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초자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의식 앞에서 나쁜 생각을 숨길 수 있다. 그러나 초자아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양심 속에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죄책감이 남아있다. 헤세는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두려움의 느낌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에게 있어서 그러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내적인 두려움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만이 그를 도울 따름이다.

다시금 말할 수 없는 것이 돌아왔다. 악마가 집으로 살며시 들어왔다. 유전적인 죄가 마음속에 박혀있었다. 모든 벽 뒤에 아주 커다랗고 보이지 않는 정신, 아버지와 심판자가 서 있었다. Ach, nun war es wieder da, dieses Unsägliche! Der Dämon schlich durchs Haus, Erbsünde nagte am Herzen, riesig und unsichtbar stand hinter jeder Wand ein Geist, ein Vater und Richter.(GWS.174)

어느 날 변민에 시달리던 헤세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위로와 도움을 요청한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아버지의 위로는 어머니보다도 훨씬 효과적이다.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용서와 위로의 가치를 높게 하였다.

어머니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은 간단하고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위로는 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심판하는 양심과의 평화, 선한 힘과의 화해이며 새로운 연대이다. 힘들게 나아갔지만 조사를 받고 자백을 하고 벌을 받은 다음 나는 때때로 아버지의 방에서 편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 Bei der Mutter war es einfacher und leichter, Trost zu finden; beim Vater aber war der Trost wertvoller, er bedeutete einen Frieden mit dem richtenden Gewissen, eine Versöhnung und ein neues Bündnis mit den guten Mächten. Nach schlimmen Auftritten, Untersuchungen, Geständnissen und Strafen war ich oft aus des Vaters Zimmer gut und rein hervorgegangen.(GWS.174)

무화과를 훔치려는 날 헤세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위로와 새로운 안정감

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의 방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찾아갔지만 헤세는 실망하게 되고, 이러한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게 된다.

2. 2. 2 어린 영혼에 나타난 무화과

젊은 헤세가 범한 도둑질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러한 운명적인 사건을 예감하면서 괴로워하였다. 자신과 주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는 주위의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였다. 아버지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의 방을 찾았지만, 텅 빈 방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그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발길을 돌리는 대신, 헤세는 방을 둘러보았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객이나 청원자가 아니라, 침입자 *harmloser Besucher und Bittsteller, sondern ein Eindringling*”(GW.S.175)이다. 그는 과거에 아버지의 방에서 두 번씩이나 무엇인가를 훔쳤던 것을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서 그는 아버지의 책상을 살펴보고, 두 개의 강철 펜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거의 질식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펜을 본래 위치로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때 그의 눈에 무화과 열매가 보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았다. 헤세는 아버지의 방을 둘러보고, 책상 위에서 무화과를 발견하였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물건을 훔치게 될 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적질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물건을 갖고 있는 인물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맛있는 과일이 소년에게 매력을 끌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달콤한 무화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대체물로 등장한다. 헤세가 어른이 되어서 포도주와 담배를 즐긴 것은 유년시절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⁶⁾ 그는 이러한 일이 잘못이라

6) Vgl. Limberg, Michael: Hermann Hesse und die Psychoanalyse, Bad Liebenzell 1997, S. 65.

는 것을 생각하였지만 무화과를 훔쳤다.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은 이 순간 잊혀지고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 대한 실망감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이끈 것은 금지된 장난의 유혹이었다. 주인공은 어른 세계의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항하였다. 허용된 일을 이탈하고 싶은 충동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열두 살의 어린아이는 내면의 자아를 진정으로 의식할 수가 없었다. 강박관념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러한 행동을 한 다음 그는 즉시 현실 속으로 돌아왔다.

2. 2. 3 화자의 반성

헤세는 나쁜 행동을 한 다음 후회를 한다.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죄의식을 갖고 가족들 앞에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함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고통이 되고 있다. 아들의 변화된 행동이 아버지의 눈에 띄었다. 아버지는 그의 상태를 물어본다. 헤세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훈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걱정도 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았다. 그는 그가 예감하였던 일이 발생한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하여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였는가, 그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친척히 주변에 대한 거부와 복수의 감정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헤세는 범죄자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는 범죄자가 체포될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도 범죄자와 같이 교만한 행동을 하고 싶었다. 이러한 행동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세는 이러한 몽상의 세계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때때로 그는 교만한 범죄자의 모습에서 겁쟁이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한편으로 아버지와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 때문에 헤세는 도주를 생각한다. 그는 도주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2. 2. 4 내면의 모습으로서 오스카 베버

오스카 베버는 열두 살의 헤르만 헤세에게 중요한 인물로서 다가온다. 오스카 베버는 헤세가 어둠 속에서 느끼는 낯선 세계의 대표자로서 나타난다. 헤르만 헤세의 섬세한 감정과는 달리 오스카는 거칠은 인상을 풍겼다. 그는 헤세와는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았다. 그는 하인, 마부와 거리의 소녀들과 친하였다. 그의 행동방식은 헤세보다 더욱 성숙하고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스카는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쉽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오스카에 대한 우정은 바로 이러한 세계에 대한 하나의 동경에 지나지 않았다. 때때로 자신에 대한 회의로 고통스러워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으로 쉽게 갈등하는 그는, 진정한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꿈의 세계 속에 잠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틀에 박힌 삶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오스카의 세계를 동경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오스카 베버로 가는 세계의 문은 닫혀있었다. 다만 자기해방을 위한 내적인 충동만이 남아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루어지는 오스카 베버와의 만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헤세가 통명스러운 말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고 싸움까지 하게 된다. 내적인 갈등은 오스카에 대한 화풀이로 표출된다. 이러한 공격성은 아버지보다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오스카에게 향한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헤세는 죄의식을 잊고 두려움을 잊게 된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범적인 아이였던 헤세는 불량청소년인 오스카를 닮아가고 있다. 싸움을 통하여 헤세는 오스카와 비슷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간구하며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였던 세계에 도달하였다.

2. 2. 5 아버지의 행동

『어린영혼』의 대부분이 헤세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권위를 간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인물들의 직접적인 만남이 묘사되어진다. 헤르만 헤세는 그가 떨쳐 버릴 수 없으면서 그것에 관하여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현실을 만나게 된다. 헤세의 행위에 대한 심문이 시작된다. 이미 내적으로 극복한 행위에 대하여 아버지는 새롭게 물음을 제기한다. 가슴이 철렁하며, 헤세는 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된다. 헤세는 무화과를 훔친 그날, 아버지의 꾸지람을 간구하였지만, 아버지는 모른체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온 순간, 헤세에게는 미묘한 상황을 잘 넘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다. 헤세는 무화과나무를 빵집주인에게서 얻었다고 말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진실을 무시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빵집주인에게로 가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헤세의 고백을 유도한다. 거기서 가는 길은 그에게 하나의 고통이었다. 교만하게 주위사람들을 바라보는 범죄자의 모습과는 달리, 헤세는 움츠려있었다. 헤세는 불만과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하여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자신의 미소를 정말로 어리석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범죄자의 당당한 미소와 같이 그렇게 경멸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에게 질문을 하며, 그를 빵집주인에게로 데려갔을 때 헤세는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한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속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꾸짖지 않았다. 아버지는 새디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였다. 마치 사람들이 쥐를 익사시키기 전에 쥐 덩에서 쥐를 춤추도록 하는 것처럼 나의 무의미한 장난을 계속하도록 만들었다. Er wußte ja alles. Und er ließ mich tanzen, ließ mich meine nutzlosen Kapriolen vollführen, wie man eine gefangene Maus in der Drahtfalle tanzen läßt, ehe man sie ersäuft. (GW.S.201)

심문대신에 차라리 회초리를 들었으면 헤세의 고통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섬세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아들에게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저녁에 아버지가 시작한 짧은 대화는 피상적인 화해를 가져오며, 본질적인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2. 3 아버지의 그림자

헤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분석심리학자인 융의 개념이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는 “의식적인 원칙과 대립되며, 도덕적이며, 예술적이며 그밖의 이유에서 버리고 억제한 우리의 본성속에 있는 근본적인 성향이다. Jene Uranlage in unserer Natur, die man aus moralischen, ästhetischen oder sonstwelchen Gründen verwirft und nicht aufkommen läßt, weil sie zu den bewußten Prinzipien im Gegensatz steht”.⁷⁾

그것은 요하네스 헤세가 어렸을 때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의 아들에게도 유전되었다. 그가 단지 강하고 좋은 측면만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 속에 내재하는 약하고 나쁜 부분을 경멸하였다. 그림자라는 것은 개인화과정에서 하나의 필요한 단계이다.

그림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헤세의 아버지인 요하네스 헤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가해자는 동시에 피해자였다. 요하네스 헤세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요하네스 헤세는 1847년 러시아의 바이센슈타인 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소심한 부인으로서 우울증과 두통에 시달렸다. 그의 아버지인 카를 헤르만 헤세는 시골의사였다. 그는 엄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직업보다 성경공부에 더욱 열중하였다. 요하네스 헤세는 네 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일곱 살 때 첫 번째 계모의 죽음을 경험하였다. 아홉 살이 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는 세 번씩이나 결혼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 요하네스 헤세는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쉽게 화를 내곤 하였다. 열한살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집에 머물게 할 수가 없었다. 리가에 있는 친한 귀족의 가족이 그를 받아들였다. 그는 방학 동안에만 그의 가족을 볼 수 있었다. 고독한 느낌이 평생 그를 따라 다녔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엄격한 아버지와 종교적인 교육은 요하네스 헤세의 발전을 힘들게 하였다. 그에게는 내적인 안식처가 없었다. 그는 세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열다섯 살 때 헤세는, 부모들이 흠이 없고 올바른 사람들

7) Jacobi, Jolande: Die Psychologie von C.G.Jung, Frankfurt/M. 1980, S. 112.

이지만, 너무나 경직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적절한 것이었다. 그의 부모들은 그들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딱딱한 삶을 살았다.⁸⁾

심리치료를 통하여 헤세는 그의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 유사한 점이 많고, 감정적인 상태를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자신의 부정적인 성격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3. 결 론

헤세의 작품에는 자서전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다. 『어린영혼』에서 헤세는 유년시절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무화과 이야기’는 헤세가 열한 살 때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삼십 년 후에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는 사실은, 헤세에게 이러한 체험이 강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헤세는, 유년시절의 경험이 많은 정신적인 장애의 원인이라고 바라보는, 심층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헤세는 그의 정신적인 문제를 유년시절에 체험하였던 아버지와의 관계속에서 찾았다. 이 작품의 배경은 칼브이다. 거기에서 헤세의 가족은 살았다. 서술자는, 그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집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헤세는 엄격한 가족의 분위기와 특별히 아버지에게 저항을 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강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무화과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와 의식적인 힘겨루기를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사이에는 진정한 소통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위적인 교육방식에서 기인하는 문제였다.

인간은 어린 시절에 체험한 상처를 나중에 공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족시키려 한다. 문학 작품은 바로 이러한 욕구충족의 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서전적인 글쓰기를 통하여 작가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

8) Vgl. Hesse, Ninon(hg.): Kindheit und Jugend vor Neunzehnhundert. Frankfurt/M. 1966, S. 527.

참고문헌

- Hesse, Hermann: Gesammelte Werke, Frankfurt/M. 1987, Band 5.
- Hesse, Hermann: Traumgeschenk. Betrachtungen, Tagebücher, Erzählungen und Gedichte über das Träumen. hrsg.v.V.Michels. Frankfurt/M.1996.
- Hesse, Ninon(hg.): Kindheit und Jugend vor Neunzehnhundert. Frankfurt/M. 1966.
- Jacobi, Jolande: Die Psychologie von C.G.Jung, Frankfurt/M. 1980.
- Limberg,Michael: Hermann Hesse und die Psychoanalyse, Bad Liebenzell 1997.
- Michels, Volker(hg.): Materialien zu Hermann Hesse »Demian«. Entstehungsgeschichte in Selbstzeugnissen, Frankfurt/M. 1993.
- Michels, Volker(hg.): Politik des Gewissens. Frankfurt/M.1977.

<Zusammenfassung>

Das Erlebnis der Kindheit in Hesses Erzählung “Kinderseele”

Hwa-Young Lee

Hesses gesamte Werke sind stark autobiographisch geprägt, und auch in der Erzählung “Kinderseele” greift Hermann Hesse auf seine eigenen Kindheitserlebnisse zurück. Jede Generation wird mit der elterlichen Denkweise konfrontiert und erlebt das zwiespältige Gefühle von Anziehung und Distanzierung. Der Prozess des inneren Konfliktes ist individuell verschieden und Grundlage für die Entwicklung der Persönlichkeit.

Der Feigendiebstahl, von dem hier berichtet wird, hat sich ereignet, als Hesse 11 Jahre alt ist. Die Tatsache, dass er dieses Ereignis 30 Jahre später wiedergibt, zeigt, wie einprägsam das Erlebnis für den jungen Hesse gewesen sein muss. Hesse ist Anhänger der Tiefenpsychologie, die in der Kindheit eines Menschen die Ursache für psychische Störungen sieht. Auch Hesse führt seine psychischen Probleme auf seine Kindheit und vor allem auf die Beziehung zu seinem Vater zurück. Diese Erzählung ist nahezu ein Paradebeispiel dafür, wie stark Hesse seine Kindheitserlebnisse in seinem Werk sublimiert hat.

Die Erzählung “Kinderseele” spielt in Calw. Dort wohnte die Familie Hesse. Dieses Haus beschreibt der Erzähler in detaillierter Art und Weise. Das ist ein Anzeichen dafür, wie sehr es seine Erinnerungen geprägt hat. Es wird in diesem Werk deutlich, wie sehr der Junge versucht, sich gegen die strengen familiären

Verhältnisse und damit auch gegen den Vater aufzulehnen. Er empfindet ihn als übermächtig und allwissend, und der Feigendiebstahl stellt eine bewußte Kraftprobe mit dem Vater dar. Der Junge sehnt sich nach seiner körperlichen Anwesenheit. Es besteht kein tiefgreifendes Verhältnis zwischen Kind und Erwachsenen. Der Vater sieht den Feigendiebstahl als Jungenstreich und kennt dabei nicht die Komplexität der inneren Zerissenheit des Jungen, der auf der Schwelle zum Erwachsen eine Orientierung sucht und nicht findet. Diese Tatsache basiert auf erzieherischen Maßnahmen, deren Autoritätsdenken eine emotionalität Nähe oftmals unmöglich macht, Das Kind hat in den Unruhen seiner sich langsam bildenden Persönlichkeit keine Möglichkeit, sich einer Bezugsperson anzuvertrauen.

Dieses autobiographische Schreiben gilt als einfaches Gestaltungsmoment, bei dem der Erzähler in einer früheren Lebenssituation versetzt. In diesem Vorgang ist der Autobiograf nicht mehr passives Objekt, sondern er wird zum handelnden Selbst, das durch die Wiederholung eines vergangenen Erlebnisses zum Gestalter seiner inneren Verarbeitung wird.

Key-Words: 어린 영혼 Kinderseele, 자서전 Autobiographie, 심리분석
Psychoanalyse

주소: (305-764)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전화번호/E-Mail: 042-821-5344 / hwylee@cnu.ac.kr